

조선명탐정·흥부 ... 극장 갈 이유 너무 많아~

설 연휴 볼 만한 영화

국내외 화제작들 대거 개봉
故 김주혁의 유작 '흥부'도
'패딩턴2' 패밀리버스터 노려

설 연휴, 다채로운 영화들이 개봉해 극장가로 관객의 발길을 이끈다. 마블의 히어로 무비 '블랙 팬서'와 드라마틱한 도주극을 다룬 한국영화 '골든슬럼버' 그리고 설 연휴 시리즈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까지 국내외 화제작이 대거 개봉해 관객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14일 개봉한 영화 '블랙 팬서' (감독 라이언 쿨러)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세계관을 구축한 마블이 선보이는 새로운 슈퍼 히어로다.

13일 오후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 예매를 집계해 따르면 '블랙 팬서'는 점유율 65.7%, 예매관객수 29만4326명을 기록하며 예매율 1위를 차지했다.

영화는 와칸다의 국왕이자 새로운 어벤저스 멤버로 합류한 '블랙 팬서' 티찰라(체드윅 보스만)가 희구 급속 '비브라늄'을 둘러싼 전세계적 위협에 맞춰 전쟁에 나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마블의 가장 혁신적인 히어로'라 불리는 '블랙 팬서'는 마블이 올해 처음 선보이는 영화로 마블 특유의 유머와 화려한 액션이 주는 재미와 함께 탄탄한 스토리 라인까지 갖춰 마블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



블랙팬서



골든슬럼버



조선명탐정:흡혈괴마의 비밀



흥부



패딩턴2

줄 전망이다.

같은 날 개봉한 '골든슬럼버' (감독 노동석)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기대작이다. 최근 다양하고 인상적인 필모그래피로 한국영화계에서 종횡무진 활약중인 강동원 주연의 '골든슬럼버'는 일본 작가 이사가 코타로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이다. '블랙 팬서'에 뒤이어 2위로 예매율을 달리고 있지만, 격차는 크다. 11.6%다.

해당 작품은 광화문에서 벌어진 대통령 후보 암살 사건의 범인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택배기사 건우(강동원)가 지목되면서 벌어지는 도주극을 담는다. 권력에 의해 한순간에 피해자가 된 소시민의 도주, 그와 동시에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친구들의 우정을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스토리 구성은 관객에게 신선함을 안길 예정. 강동원, 한효

주, 김의성, 김성균 등 대한민국 대세 배우들의 호연과 드라마틱한 전개로 '블랙 팬서'와 함께 관객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지난 8일 개봉한 '조선명탐정: 흡혈괴마의 비밀' (이하 '조선명탐정' / 감독 김석운)이 설 연휴 극장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지난 주말 1246개 스크린에서 63만 1283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조선명탐정'은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사건 앞에서 김민(김명민)-서필(오달수) 콤비가 의문의 여인 월영(김지연)을 만나게 되면서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을 그린다.

조선시대에 벌어진 '흡혈귀 살인사건'이라 불리는 소재도 특별하지만, 이번 시리즈에서 주목해야할 점은 김민-서필 콤비에 또 한명의 주인공이 추가됐다는

점이다. 세 사람의 찰떡 케미를 확인하는 것은 어떨까.

또 한편의 사극 '흥부' (감독 조근현) 역시 설 연휴 극장가에서 만날 수 있다.

'흥부'는 현재까지 전해내려오는 흥부전을 재해석해 완전히 새로운 내용을 그린 영화다. 붓 하나로 조선 팔도를 들썩이게 만든 천재작가 흥부(정우)가 남보다 못한 두 형제로부터 영감을 받아 세상을 뒤엎듯 소설 흥부전을 집필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JTBC 드라마 '힘쎈여자 도봉순', '폼위있는 그녀'로 브라운관을 휩쓴 백미경 작가의 첫 스크린 도전작으로 백작가가 '흥부'를 통해 스크린까지 압도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은다.

'흥부'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김주혁의 유작으로도 관객이 손꼽아 기다

려온 작품. 김주혁은 '흥부전'의 실제 주인공이자,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 조혁 역을 맡았다. 조혁은故 김주혁처럼 따뜻한 심성과 울음은 독심을 가진 인물이라 스크린에 되살아난 김주혁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작품은 로튼 토마토 신선도 100%, 영국 박스오피스 3주간 1위에 빛나는 '패딩턴2'로 설 연휴 극장가 최고의 패밀리버스터 자리를 노린다. 러틴 생활 3년차, 자칭 알바 마스터가 된 스타콤 패딩턴이 도둑으로 몰려 감독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펼쳐진다. 전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유쾌한 작품으로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 8일 개봉해 절찬리 상영중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평창올림픽 메달경기도 가족과 함께

2018년 설은 한층 풍성해질 전망이다. 연휴 기간 동안 평창동계올림픽이 펼쳐지기 때문이다. 올 연휴, 국가대표들의 짜릿한 순간을 함께 해보면 어떨까.

설 연휴의 시작인 15일에는 6개 종목에서 메달이 결정된다. 메달 레이스의 시작은 알파인스키의 남자 활강, 여자 대회전 2부부터다.

오전 11시 30분 열리는 남자 활강에는 '기대주' 김동우가 출전하고, 오후 1시 45분 열리는 여자 대회전 2부에는 또 다른 '기대주' 강영서와 김소희가 출전한다.

뒤를 이어 오후 3시 30분에는 크로스컨트리 여자 10km 프리 부문에서 이채원과 주혜리가 메달 사냥이 나선다.

15일의 마지막 메달은 오후 9시 30분 열리는 루지 팀 계주 경기에서 나온다.

16일에는 오후 3시 열리는 크로스컨트리 남자 15km 프리 종목에서 금, 은, 동



한국 남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황대헌(오른쪽)이 13일 오후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남자 1,000m 예선에서 역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메달이 갈린다. 김 마그너스와 김은호가 출전할 예정이다.

17일에는 여성 선수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단, 메달색이 결정되는 종목은 모두 저녁 늦게 열린다. 연휴의 대미를 장식할 종목은 바로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m다. /김민서 기자 min0812@



CGV

조조·2편 이상 관람 할인 이벤트



롯데시네마

예매번호 '로또'로 상품권 지급



메가박스

강철비 등 대작 영화 5000원 관람

관객 유혹하는 영화관... 각종 이벤트 풍성

◆CGV, '영화는 최소 2편각'

CGV가 설 명절을 맞아 특별 할인 혜택과 풍성한 선물이 가득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에서 영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일찍 일어나는 새는 조조각' 이벤트를 실시한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조조각'은 설 연휴 기간인 2월 15일과 16일 이들 간 낮 12시 이전에 시작하는 일반 2D 영화를 6000원~7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이벤트다. 14일까지 낮 12시부터 2시까지 CGV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15일부터 18일까지는 '영화는 최소 2편각'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내에 서로 다른 영화를 2편 이상 관람 시 영화 1+1 관람 쿠폰을 증정한다. 영화 2회 관람 시에는 주중 일반 2D 1+1 쿠폰, 3회 관람 시에는 주중 IMAX 1+1 쿠폰, 4회 이상 관람 시에는 주중 4DX 1+1 쿠폰을 제공한다. CGV 모바일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참여하기'를 누르면 이벤트 기간 내 영화 관람 누적 횟수가 자동 적용된다. 1

+1 쿠폰은 23일 전까지 일괄 지급되며, 사용 기간은 3월 2일부터 30일까지다.

설을 맞아 CGV 씨네드쉐프(CINE de CHEF)는 CGV 씨네드쉐프 상품권 세트(10만원권 2매)를 구매한 고객에게 씨네드쉐프 전용 영화관람권 2매를 선물로 증정한다. 본 이벤트는 총 200세트에 한해 선착순으로 증정되며 자세한 사항은 씨네드쉐프 압구정, 용산아이파크몰, 센텀시티로 문의하면 된다.

◆롯데시네마, LOTTO 이벤트

롯데시네마에서 설 연휴를 맞아 예매번호 당첨 이벤트인 '설 맞이 로또(LOTTE CINEMA LOTTO)'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5~18일 롯데시네마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예매한 고객 전원 자동으로 응모되며, 당첨자는 22일에 롯데시네마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발표된다.

예매번호 7자리가 당첨번호와 일치 시 롯데상품권 100만원이 지급되며, 1등 당첨 번호와 마지막 자리 수가 불일치 하지

만 보너스 숫자와 일치하는 1명의 고객에게 50만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 세트가, 1등 번호와 마지막 자리 수만 불일치하는 8명의 고객에게 20만원 상당의 영화 관람권 세트가 상품으로 제공된다.

◆메가박스 '조심조심'·'메가박스'

멀티플렉스 영화관 메가박스가 설 연휴 맞이 풍성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먼저, 오는 15~18일 '10시에는 조심조심 7000원'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전 10시 이전의 조조 영화와 오후 10시 이후 심야 영화를 7000원에 인원과 횟수에 상관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예매 가능하다. 특히 심야 영화의 경우 최대 3000원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대작 영화를 5000원에 관람할 수 있는 '메가박스 드리는 福 터지는 새해 선물' 이벤트도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다. 선정된 대작 영화는 '강철비'와 '그것만이 내 세상', '불한당', '타이타닉', '1987'이며 해당 영화는 이벤트 기간 동안 5000원에 관람 가능하다. /신원선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23 | 해질 / 18:10

2월

14일

음력 : 12월 29일

수도권 날씨

1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